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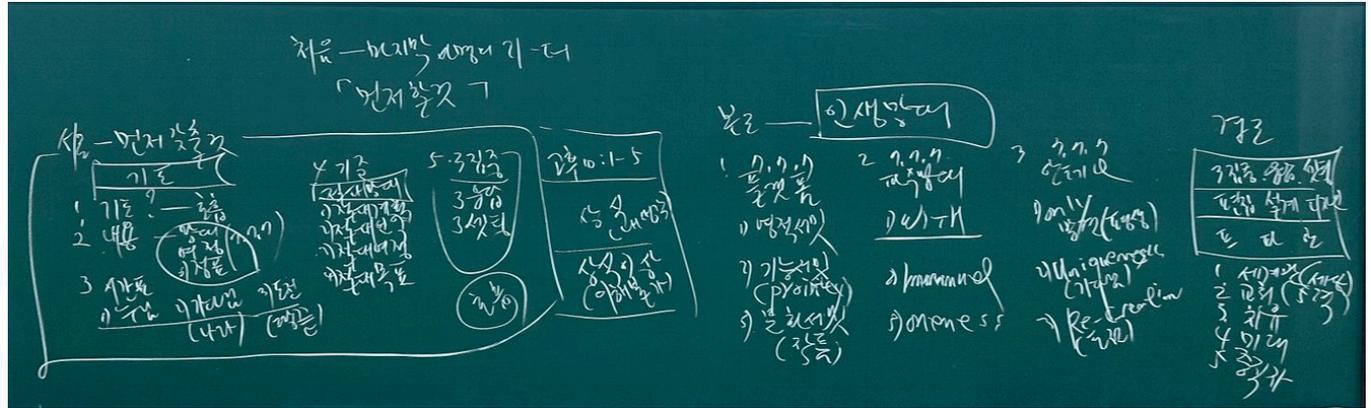
2024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날짜/장소 ▶ 2024년 3월 1일 / 덕평 RUTC

주제 ▶ 처음이요 마지막 사명의 리더들

주제 성구 ▶ 사도행전 19:8-10

- 0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 하되
- 0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 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강 ▶ 먼저 할 것

이 주제곡을 작년에는 한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모집해서 선별했지요. 작년에는 일부러 정진욱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작곡을 해보라고요. 여러분이 부를 때 잘 이렇게 가사하고 잘 맞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이올린으로 하니까 내가 뭘 느꼈나 하면요 '아이 작곡이 대단한 작곡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원래 하영이가 나와 가지고 드론리 이거부터 안 하고 가사로 들어갔거든요. 원래 진욱이가 작곡을 그렇게 해 왔어요. 처음에 그 드론리가 안 들어가고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왔는데 내가 부탁을 한 겁니다.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불러야 되니까 강하게 처음부터 드론리 그거부터 하고 해라." 이렇게 부탁을 제가 한 거지요. 오늘 우리 하영이가 했는데 원래 정진욱이가 해왔던 그런 순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음악 전문인들이 연주할 때는 이런 우리 곡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RT들 할 때는 또 달라요 굉장히 은혜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RT들이 문화가 세계 살리는 거로 갈 겁니다. 앞 시대만 해도 특별히 누구에게 잘 보여야 뜨는 시대였어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지요. 개인 방송 시대 올 거라고. 지금 왔습니다. 이제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또 다릅니다. 저렇게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이제 무조건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거는 틀린 것

들도 막 나오지요. 가짜 뉴스도 막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옳은 것이 정복하게 되지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표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지금 초, 중, 고 대학생들은 이제 여러분을 발판 해서 조금 더 자라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발판을 놓았지마는 기성세대는 이제 아무래도 마무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양쪽에 지금 중간에 허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지요. 결국은 축구에서도 허리가 지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완전히 패한 게 허리에서 진 거예요. 사람도 몸도요 허리가 안 좋으면 꼼짝 못 합니다. 청년들이 약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가서 완전히 현장과 교회를 뒤흔드는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 뒤흔드니까? 어른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포럼 운동을 전 교회에 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증인으로 전도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 제가 키웠는데 주일 예배는 잘 모르겠는데 철야기도 때는 표가 나잖아요. 긴 시간 같이 있으니까요. 또 철야기도 하면 오랜 시간 하잖아요. 그런데 철야기도 시간에 교인들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데 90%가 청년이요. 할 말 없지요. 교회에서 막 싸우고 하는 장로님들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흑암이 맥 못 추는 거예요. 아니 철야기도 하는데 청년들은 직장 다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철야도 옛날 길게 했다니까요.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했잖아요. 거의 90% 청년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워 있게 가는 거지요. 청년들은 군데군데 말씀운동을 펴야 돼요. 반드시 교회에서 만나거든 말씀 포럼 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기성세대는 전부 육신적인 포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한표에 있다는 걸 알고 언약을 청년답게 딱 잡으셔야 됩니다.

처음 - 마지막 사명의 리더

[먼저 할 것]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제일 첫 번째는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번에 주제는 <처음이고 마지막 사명의 리더다>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운동을 옛날에 한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명의 리더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한 주간에 있었던 말씀운동에 은혜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땠겠어요. 나는 생전에 전도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데 이 사람이 막 전도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증처럼, 자랑처럼 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받은 너무 감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 방 맞은 거 같더라니까요.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전도가 뭐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이 사람 나한테 간증하거나 무슨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느끼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 때가 많을 텐데. 그때 내 느낌이 어떻게 오나 하면 '아 이 사람이 간증한다.' 이렇게 안 느껴지고 '아 이 사람 굉장히 내게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고맙다 자기 은혜받은 걸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내게 관심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게 작은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전도운동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밑에 깔려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 교인들은 거의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청년이 미래 불안이 거의 90%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지요. 한 10% 정도는 '아 나는 잘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90%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이 여러분 현금을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청년이 어른 됐을 때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 그걸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을 놓고 미래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놓고 오늘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요. 틀림없이 여러분 증직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때 되어서 내가 아무런 교회를 살리지도 못하고 증거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비참하게 '나 돈이 없어서 뭘 못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비참한 거는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서론_ 먼저 갖출 것

[기도]

먼저 갖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은 안 바뀌어요. 바뀐다고 하는 교단도 있는데 그건 엉터리 교단이고요. 구원은 안 바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와 비밀을 줬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될 거는 많은 여러분 후대 RT들이 약간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지난 주간에 내가 책을 하나 입수해서 봤는데 일본에 뇌에 대해서만 평생을 한 의사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인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분만 명상하는데 뇌가 살아나는 것을 증거했어요. 이 사람은 뇌 의학자고 뇌 과학자예요. 그렇겠지.

1. 기도? - 호흡

도대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완전히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은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숨 쉬는 것도 육신도 호흡은 항상 해야만 되는 거다. 그렇지요? 근데 영적인 거는 표가 안 난단 말이요. 영적 호흡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호흡이 잘 안 되면 우리 몸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멈춰버리면 제일 먼저 뇌가 파괴되잖아요. 살아나도 정상이 안 돼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제 영적인 호흡이고 실제 호흡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많은 답이 나와요.

2. 내용 - 망대, 여정, 이정표 (7·7·7)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부터 빨리 딱 결론 내고 세팅을 해야 돼요, 청년 때. 그러면 사실 끝입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혹시나 내가 다른 걸 열심히 해도 성공은 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수준 비슷하게 돼요. 문제는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입니다. 놀라운 비밀은 망대 중에서 움직이는 망대가 있어요. 근데 원래 만들은 성막 있잖아요. 움직였어요. 그 성막에 바위가 있었다니까요. 그거는 굉장한 비밀이지요.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가려고 하니깐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정표가 있는 거요.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 난 이거를 이렇게(777) 누린 겁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3. 시간표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시간표가 더 중요해요. 시간표도 아주 중요해요. 시간표도 세 개 아닙니까. 뭐지요?

1) 누림

일단 누려야 돼요. 누림. 뭘 말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2) 기다림 (나라)

그다음에 기다림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40일 설명했어요. 이(누림, 기다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 도전 (땅끝)

도전입니다. 뭘에 도전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땅끝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어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 됩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자 애굽까지 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됐어요. 저 식당에 일하면 어떡할 겁니까. 큰 최고 권력 있는 군대 장관 집에 일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어요. 이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안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걸 놓쳐요. 그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냐? 아니지요.

이때부터 이 힘 가지고 정확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땅끝. 땅끝에 대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집 아이가 좀 자빠야합니다. 저는 24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 아픈 게 저는 전 세계로 못 갑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못 갑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그다음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분 보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사랑부에 생을 거세요. 그게 땅끝입니다. 그게 24입니다.” 나중에 어떤 응답 오겠지요?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우니까 어려운 거라 생각하지. 중요한 걸 놓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딱 정확하게 갖춰야 돼요.

4. 기준

[절대 망대]

그러면 기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청년으로서 여러분 기도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뭘니까? 절대 망대를 세워라. 자 이(서론) 세 개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1) 절대 계획

절대 망대를 세웠단 말은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 보일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했잖아요. 떠나야지,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말은 이걸 놓치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여러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약 제대로 잡아야 돼요.

2)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이 보이면 절대 언약이 보이잖아요. 저절로.

3) 절대 여정

그 언약 잡고 가는 절대 여정이 보이잖아요.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절대 여정입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절대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망하는 여정입니다. 요셉에게는 절대 여정입니다.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차이 나 버립니다. 언약 없고 불신자 사탄의 백성은 어쩔 수 없어요. 위기 오면 그거는 멸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4) 절대 목표

이 요셉은 절대 목표 알고 있었었습니다. 해, 달, 별이 절하는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목표 가지고 있었다.

이게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세 가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5. 3집중

3집중. 이때부터. 청년들은 눈 딱 뜨면 할 수 있는 데까지 5분이든 10분이

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침에는 편안하게 그냥 기도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생활을 다 해야 되니까. 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세 시간을 기도하고 앉았다? 어찌다가지. 매일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침에는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올 때까지는 계속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호흡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움직이면서 하나씩 편안하게 호흡 해가지요. 나는 24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해야 돼요. 나는 약간만 어기면 문제 와요. 전에 갑자기 집회 오다가 못 왔더니깐요. 다리가 문제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비서들에게 잡혀 가지고 병원 갔더니깐요. 의사가 알아들을 수가 없지. 지금 내가 나는 호흡하는 사람인데 잘못 했으니깐 약간 진통제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이해 못 하지. 저는 호흡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의사는 많이 뒤흔어진 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이 거의 다 호흡에서 와요. 그걸 의사가 모르는데 옳은 의사 되겠어요? 그리고 의사가 나하고 심각해서 생긴 거다. 아니다 진통제 달라. 사진 찍어야 된다. 찍었는데 청년 관절이 나왔어. 아무 이상이 없어. 한 잔만 주세요. 한 잔 먹고 바로 오후에 강의하러 왔잖아 걸어서 이렇게. 전에도 한번 눈. 조금만 쉽게 말하면 오버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르게 해야 돼요. 아침에 움직일 때는 호흡을 들이쉬어서 많이 참을 때는 나이 든 사람에게는 금방 반응이 나타나 버립니다. 여러분처럼 생전에 안 하다가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러나 계속 아침에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과 모든 걸 가다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면서 호흡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되면 내가 일과가 시작되면 낮이에요. 저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뭐가 없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아침이에요 저는. 그리고 시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게 끝나야 밤이요. 그렇지요? 그러면 낮에 하는 건 전부 내가 지금 그걸로 할 수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누려야 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기도로 바뀌야 돼. 거기에 하는 호흡은 또 조금 달라. 밤에는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말하자면 답을 내야 되잖아. 말씀의 답을. 그게 3집중입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내 삶을 가지고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3 응답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게 3응답입니다. 3응답은 뭘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제가 더 많아. 가는 곳마다 힘들고 갈등 생기

잖아. 그게 더 많아요. 어찌다가 말이에요 위기도 온단 말이에요. 그 세 개는 답이요 갱신이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게 3응답이에요. 늘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3세팅

3세팅입니다. 3세팅이 딱 되어지는 거지요. 좀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3세팅이 딱 만들어져. 이때부터 사람이 와. 뭐가 와요. 왜냐? 만들어져 있으니깐. 영적으로 플랫폼 만들어지니까 뭐가 온다니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막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영적으로 뭐가 와야 돼. 그리고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고 사람이 와서는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치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파수 망대요. 여러분 핸드폰에 칩 하나 들어가면 전 세계 통일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물론 특별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거는 특별한 거지 늘 특별하게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금식할 때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좋습니다. 그거는 또 특별한 얘기거든요.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생각하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자 없었습니다. 노바디입니다. 여러분 낫싱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갖춰라. 이게 무기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탄말해도 여러분은 젊을 때 젊은 힘으로 하다가 나이 들면 그 힘없어. 그러면 안 돼요. 답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중년 되기 전에 은퇴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세계 선교 다닐 만큼 답 찾으세요. 의사 누가처럼. 그 성공한 의사예요. 원래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 법관의 주치의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하지요. 바울이 전도하는 모든 사역을 따라다니며 기록했잖아요. 그 정도는 성공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은퇴해 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연금으로 어떻게 살까, 이 수준인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합니까? 못 해요. 그래 가지고 남 말이지 잘 사는 거 쳐다보고 침이나 흘리고 시기하고,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아니 뉴에이지 멤버인 빌 게이츠 같은 몇조씩 그냥 현금해 버리는데요. 교회가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저 사람들이 수십조씩 그냥 내놓잖아요. 그만큼 이 능력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네퍼팀 능력이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은 비교할 바가 없는 거지요.

이걸 아무도 안 누리고 그냥 자꾸 생각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혹시 뭐 예베드릴 때 받은 은혜 이 정도란 말이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모르니까 실제로 뛰어난 인물들은 머리가 좋다는 말 아닙니까. 머리가 좋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기억하는 뇌세포가 발전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각하는 뇌세포는 덜 발전했어요. 그걸 보고 타고났다 공부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각하는 세포는 약하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처럼 까먹는 게 더 많아 가지고 이러면 좀 병은 작게 와. 그래서 특이한 인물 가운데 특이한 것 하다가 특이하게 죽는 거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건져내줄 수 있는 인물도 교회는 없어.

그래 청년들이 진짜 정신 차려서 교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지요 말씀운동 펴고 말이야 기도운동 펴고 사람 살리는 운동 펴는데 누가 말합니다. 판 거 하나까 그렇지 못 말려요, 그거는. 어지간하면 교회 행사에 맡은 거 없어도 청년들 짝 모여서 기도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파트 것만 하지 말고 이제 눈을 뜨고 전 파트를 살려야 돼.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야 돼요. 모델 되어야 됩니다. 아니 유년 주일학교 아무 상관없어. 근데 청년이 관심 가지고 봐야 돼 이렇게.

조금 참고해야 될 건 한 세 가지 있습니다.

[고후 10:1-5]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나까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나쁘다고 볼 순 없지만 내 안에 벌써 다른 망대가 만들어져 있다. 당연하지요. 이 능력으로 바꿔 버려라.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것 각인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말씀으로 파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견고한 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파해져요. 그러나 참고는 해야 되는 거지요.

[상식(내 생각)]

99% 사람들이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이란 말은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생각. 필요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론 세계복음화 못 해요. 상식은 상식이지 세계복음화 못 해.

[상식 이상(이해 불가)]

여러분 상식 그 이상이라야 돼요.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상식 그 이상

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언젠가 볍시다 두고 볍시다. 이거는 상식이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걸 보고 상식이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청년들은 상식도 있어야 되지만 이 이상이라야 돼. 왜냐? 성경에 거의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게 많아. 광야에서 죽을 판인데 “성막 지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요.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성전 재건 해라.” 지금 쫓기는 판인데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머리로 전혀 이해 안 되는 게 성경에 거의 다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0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담아 갖고는 안 돼요. 이해 못 해. 나하고 하나님 IQ 같을 때 하는 얘기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무조건 여러분 살면 다 삽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 삽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 판 건 안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은 시간표란 게 있잖아요. 시간표가 있어요. 정은주 목사님 이제 내 안 되겠다 아이들 하는 거 보니 내가 축구선수로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요 저는 말리겠어요. 참으세요 하면서. 그렇지요? 나이란 게 있어. 그러나 우린 어린 학생이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요 저 축구선수 되고 싶다.”, “해봐.”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살리고 여러분이 후대 살리고 다 합니다.

본론_ 인생 망대

뭐 해야 될 거냐는 둘째 시간에 이야기하겠고요 일단 여러분 이거 안 갖추면 안 돼. 이거부터 갖춰야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인생 망대를 확실히 만들어라. 맞지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인생 망대를 확실히 만들어라.

1. 7·7·7 플랫폼

7·7·7 플랫폼을 확실히 만들어.

2. 7·7·7 파수 망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빛의 능력을 나의 파수 망대로 만들어.

3. 7·7·7 안테나

앞으로 이제 머리에도 칩 들어간다 안 합니까. 그럴 겁니다. 완전히 이거를 나의 안테나로 만드는 거지요.

1. 7·7·7 플랫폼

자 이렇게 될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1) 영적 서밋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답이 다 나왔지요. 영적 서밋입니다. 청년들은 영적 서밋이 돼라.

2) 기능 서밋 (priority)

두 번째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이 돼라. 이거 아직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렘넌트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공부를 해라. 이걸 여러분이 모델로 보여줄 필요 있어요. 진짜 기도 계속하는 속에 나오는 내 직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사는 거요. 다윗이 없는 돌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돌은 던지는 거는 다윗만 던지는 게 아닙니다. 다 던져요. 목동들은 다 한다니까요. 다윗이 던진 돌에 골리앗이 맞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사용해서 그 돌을 던진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물이 절벽을 만나야 폭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낮은 데서 무슨 폭포가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능 서밋.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오리티.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나오는 서밋.

3) 문화 서밋 (작품)

여기서 이제 작품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성공합니다. 이거 한 사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라니까.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일, 여기서 나온 작품. 잘 아는 말 같지만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 알면 여러분 후대 키울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목사님들은 금요일 시대 말할 필요도 없고, 필수로 해야 되고요. 청년들은 주역으로 모델로 해야 돼요.

2. 7·7·7 파수 망대

1) WITH

이때 어떤 파수 망대가 만들어집니까? 이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위드입니다. 이야. 이게 빛을 보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2) Immanuel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3) Oneness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가 하나님의 계획 들어있는 거요. 원니스. 나는 왜 이리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니스 계획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 공부도 잘했거든요. 그리고 일 같은 거 하면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 하나님

을 안 믿으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저를 보고 여러분하고 같이 세계복음화하려고 예비해 놓은 사람ियो. 그걸 모르고 말이야 내 머릿속 세상 거 들어 가지고 사법고시 이런 거 생각하고. 그게 나쁘단 말 아니예요. 그저 내 거 아닌데 자꾸만 이거. 행정고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게는 아닌데 자꾸 내가 생각하니까. 아예 나는 기도를 몰랐으니까.

호흡

그래서 이 기도에 집중을 가장 중요한 내 몸하고 가장 가까운 호흡으로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거 못 가르쳐주면 명상운동을 못 이겨요. 명상운동은 한마디로 뭘니까? 청년들 알고 있어야지요. 명상운동이 뭘니까? 호흡하며 주문을 외우는 거 명상운동입니다. 호흡은 틀린 게 아니고 누구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यो. 그게 목상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순례자의 기도가 뭔가 몰라요. 순례자의 기도에 나옵니다. 참 다행이지요. 쪽 이렇게.

3. 7·7·7 안테나·

1) Only 발견 (평생)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게 오는 겁니다. 이거는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평생으로 발견되게 돼 있어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쉽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되지. 여러분이 오직을 발견해 버렸어. 오직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도 발견하고 큰 데서도 발견하다가 평생의 오직을 발견한단 말ियो. 이게 답 아니겠어요?

2) Uniqueness (기다림)

유일성이 발견하게 돼요. 이 유일성은 이제 기다리는 거지요.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만 누리고 있으면 기다리면 돼.

3) Re-creation (도전)

드디어 이제 재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재창조되어지면 이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쉽게 도전하지마는 다른 사람은 못 따라와.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플랫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안 믿으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수준만 되면 되는데 불신자 심부름해야 돼요. 리더를 못 해

요. 그게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니까 네피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강대국입니다. 강대국마다 네피림 시스템 있었어요. 그렇지요? 복음 모르니까. 큰 신전 만들어 우상숭배 하나까 능력 생기니까.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온단 말ियो. 근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에 종노릇 하게 된 거지요. 이 중에 소수가 이걸 누린 겁니다. 반드시 승리했어요.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필수입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메시지 할 때는 더 많이 누려요. 통역하잖아요. 들이쉬고 기도 저절로 되지. 들이쉬고 얘기하는 거는 달라요. 그리고 계속 건강도 생기고 기도도 되고.

결론

[3집중, 응답, 세팅]

자 실천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힘을 갖춰야 된다 이 말ियो. 어떤 힘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실제로 이젠 다시 확인해야 돼요. 3집중, 3응답, 3세팅은 항상 누리는 기도예요. 항상 누려요. 지금 항상 누릴 것 얘기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면 이걸 항상 누리면 분명히 뭐가 나오지요. 이걸 항상 찾는 겁니다. 편집. 굉장히 재밌어요. 항상 찾는 겁니다. 편집.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나는 40년 가까이 이 호흡 기도를 했는데 호흡에 관한 책은 어제도 읽었다니까. 새책. 새책 나오면 읽어봐 이렇게. 근데 읽어보면 또 새로운 게 있어요. 의사가 쓴 거 읽어보면서 확실히 의사가 다르네. 이 사람은 뇌만 전문적으로 한 사람ियो. 그리고 후대들 보고 가르쳐주세요. 앞으로 뇌과학, 뇌 치유 시대 옵니다. 3단계에서 이제 기계로 할 거거든요. 하겠지요. 찬스입니다. 청년에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치유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기도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플랫폼입니다.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플랫폼 얘기했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계속 만들어지는 거 플랫폼이. 파수 망대와 빛을 더 멀리 널리 계속 뻗치게 되고 안테나가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보완되듯이요 계속.

AI 폰을 한 개 샀는데 어느 정도 발전됐나? 칠 필요가 없어. 얘기하면 글자

나와버리는 거지요. 전에 치다가 헛갈려 지우고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어렵게 들리면 안 됩니다. 이 전체가 한 마디로 딱 들려야 됩니다. 어렵게 들리면 굉장히 복잡해요. 어렵게 들리면요 메시지 안 듣는 사람들은 “뭘 저렇게 많아. 단어가 저렇게 많아.” 이럽니다. 결국 한 마디예요. 결국은 하나님 주신 거 제대로 누리고 세계 살려야 이 말ियो.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 5가지가 있어.

1. 세계관 (세상)

그 첫째는 뭘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다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요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이요 그게. 그래서 맨날 이념싸움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 깊은 이념싸움입니다. 말은 안 하지. 말은 안 해. 깊은 이념싸움. 말 절대 안 하지. 그 말 하면 또 색깔론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요. 양쪽이 굉장히 이념싸움.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야 세상 살리는 거요.

2. 교회 (5력)

또 이런 기도하는 이유가 뭘니까? 교회 살려야 돼. 이거는 세상 살리고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살리려고 하면 5력이 필요해요.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돼. 5력이 있어야 돼요.

3. 치유

또 저렇게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세 번째 이유는 뭘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좀 치유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혼란 시대 옵니다. 지금 혼란스러워요, 완전히.

4. 미래

그리고 뭘니까? 여러분이 이제 후대 키우는 미래 준비를 해야지요. 이걸 뭘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야 램턴트들이 커서 올라오면서 보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냥 24 들어가라니까요, 편안하게.

5. 종직자

종직자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봤잖아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정말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성경에 있는 그 중직자 준비해야 돼요.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처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섬기고 주의 종 섬기겠다 준비해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록펠러처럼 나는 돈 벌어서 물질로만 헌신하겠다. 좋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자기 가지고 있는 학문 이거로 헌신했다 좋아요 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 미리 발견했다. 청년 때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살릴 주역인데 지금은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큰 힘을 얻기 시작하는 지금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또 미래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 살리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더 중요한 나를 살리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